



朴昌根

〈本会고문·(社) 環境教育会 회장〉

## 「世界環境의 날」과 「6.25 한국전쟁의 날」

—6월은 단 하나뿐인 조국을  
생각하는 달이어야 한다—

6월은 우리 環境人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각별한 달이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6·25 한국전쟁」과 그날의 비극을 되새겨 보게 하는 6월6일의 「현충일」...

그런 날이 6월의 뜨거운 陽光속에서 아직도 이글이글 끓고 있다.

그리고 우리 環境人들의 세계적 각성의 날이라고 할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이 「현충일」 전 날에 서 있다.

이런 저런 까닭으로 우리 環境人들은 6월을 1년

중 가장 뜻깊은 달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단 하나뿐인 지구의 汚染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UN 산하의 117개 국가가 하나로 뜻을 모아 지구의 환경보호를 결의한지도 어언 16년,...

그러나 오늘 되돌아 보는 지구의 환경은 16년 전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

즉, 16년 前의 地域的 汚染이, 국제적 汚染으로 擴大되고, 서서히 진행되던 汚染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가속화 되고 있다. 뿐이라 그 汚染의 농도도 깊어, 치유가 거의 不可能한 상태다.

말하자면 16년 전, 人類의 결의가 16년 후의 오늘에 되돌아 보니, 결의 그 자체로 끝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와 마찬가지로 37년 전의 6·25 한국전쟁의 상흔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의 아픈 기억은 씻은 듯 잊혀지고 있다.

즉, 지구의 汚染을 막자는 人類의 결의는 결의 그 자체로 남아, 汚染은 더 늘어났고,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비극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결의는 실천을 수반해야 되고, 비극은 잊혀지지 말고 치유되어야 하는데……「세계 환경의 날」의 다짐은 다만, 다짐으로 남아 버릇마냥 해마다 그날을 되돌아 볼뿐이고,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깊은데, 그 상처의 까닭을 까맣게 잊고 있으니…

그래서, 같은 6월에 「현충일」이 서 있는데도, 망각 증세가 심한 우리네 백성들은 지금의 신나는 일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는 두 동강난 조국의 비극도 서럽디 서러운데, 지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부산과 대구 또 강원도 서울로 갈갈이 갈리는 추태를 보였다.

그리고, 지척에 敵을 둔 불안한 상태에서, 安保는 어디로 팽개쳐 버렸는지, 자고나면 데모에, 파업에 눈코 뜰 사이가 없으니 정말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 무엇도 말고, 우선 지척의

敵을 견제하는 團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허리를 졸라, 6·25 그날의 어렵고, 힘들었던 비극을 되새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네 環境 되어가는 꼴은 가관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나올 정도로 氣가 차다.

우리도 버릇마냥 「세계환경의 날」을 기억해 그 「날」의 뜻을 되새기지만, 그냥 되새길 뿐이니……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그 무엇에 앞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되겠는데, 최근의 善心은 나라의 환경을 쓰기 좋은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Green belt 해제와 무차별 開發 붐이 그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더 불편하고, 어려울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國土 환경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각오와 실천을 위해, 6월의 한 날을 「環境인의 날」로 定해, 정부와 국민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6·25 한국전쟁」과 「현충일」과 같이 「세계환경의 날」과 「環境인의 날」이 서로 어울려 6월 한달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6월은 우리 環境人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각별한 달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되고, 백성이 산다.

1988. 5. 7.